

##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정 진 경†  
충북대학교

탈북자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14세에서 62세까지의 남녀 탈북자 150명에게 성역할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KSRI)와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하는 검사(KGES)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북한사람들은 남한사람들에 비해 성역할 측면에서 더 성전형화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사람들이 남녀간에 남성성, 여성성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여, 북한사람들은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 여성이 여성성이 더 높고 남성이 남성성이 더 높았다. 남녀평등의식의 측면에서는 남한사람에 비하여 더 보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보수적이었다. 가정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의 영역에서 남성이 유의미하게 더 보수적이었고, 교육생활 영역에서만 차이가 유의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한사람과 비교했을 때, 남성들간의 차이보다는 여성들간의 차이가 훨씬 더 컸는데, 이는 남한여성들의 가치관이 진보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북한사람들은 사회제도나 공적 조치에 대한 태도의 표명에서는 성평등적인 가치관을 표명하는 한편, 남녀의 바람직한 성격과 행동, 몸가짐이나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매우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외에도 연령, 학력, 결혼상태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북한사람의 성역할 특성과 남녀평등의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앞으로 연구에서 다루어야할 주제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북한, 북한사람, 성역할, 성역할 특성, 남녀평등의식

\* 본 연구는 2001년도 학술진흥재단에 학술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정 진 경,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chungj@cbucc.chungbuk.ac.kr

최근 수년간 남북한 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교류가 늘어나고,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사람들간의 만남과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상호작용은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과 통일을 앞두고, 양측의 사람들이 만나서 화합을 이루며 지낼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회적 실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계에서는 최근 10 여년간 이 문제에 주목하면서 심리적 통합의 전망과 과제(차재호, 2000), 북한의 문화적 특성(한성열, 2000), 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요인(이장호, 1993),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김혜숙, 2000; 이수정, 1999; 전우영, 1999; 전우영, 조은경, 2000), 남북한의 경제심리 비교(성영신, 서정희, 심진섭, 1993) 등의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탈북자 수가 천명을 넘어서면서 남북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상황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남녀의 성역할 분야는 현저한 갈등을 보이는 분야이다. 한 예로 어느 탈북자는 남한의 젊은 여성들이 남자친구에게 반말을 하고 툭툭 치기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또 한 탈북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남한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는 그 날부터 그 여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피해 다녔다고 한다. 많은 여성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여자들이 누리고 있는 가정 내에서의 동등한 위치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전우택, 1997, 1999). 이러한 차이는 분단시기 동안 양측의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그에 따른 사회변화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서, 남북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되고 남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화합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 북한사람들의 성역할에 대한 연구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최근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정신의학, 가정학 등의 분야에서 조금씩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생활문화, 여성의 역할, 가족관계 등에 대한 연구들은 문헌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모습을 그려내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북한 사회는 남녀평등이 실현된 사회라고 공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문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북한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유교적 가치관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가부장적 가족주의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안찬일, 1997; 도홍열, 1994 등). 분단상황에서 굳어진 군사문화도 성차별적인 관행을 더욱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의 국가들(예를 들면, 한국, 중국, 일본 등)이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경향을 띠지만 이들 나라들은 그동안 개인주의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서구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접촉을 꾸준히 해온 결과 유교적 가치에 바탕을 둔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상당히 희석된 상황이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지금까지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소수의 나라와의 경제적 관계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 문화의 영향을 덜 받아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문화적 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임금에 대한 충성과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절대적 가치로 신봉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사회체계를 조직하고 운용하였던 조선시대와 그 이후의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북한은 서구적인 문화와 접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이다(안찬일, 1997; 도홍열, 1994). 한성열(2000)은 정치제도가 이념에서는

현대의 북한이 그 때와 다르지만, 그 제도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문화의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았다. 이에 더하여, 분단 이후 김일성은 기존의 유교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가족주의 문화의 속성 중에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유리한 측면을 선택적으로 조장하고 과장하였고, 반대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부분은 제거하거나 축소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 사회는 매우 독특하게 변형된 가부장적인 가족주의가 계속 조장되고 유지되고 있다.

북한의 가족제도에서 이러한 가부장적 성격은 잘 드러난다(차재호, 2000). 북한 정권이 처음부터 전통 가족을 “붉은 가정”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사상이 상당히 온존하고, 남아존중사상, 조상숭배, 친족간 교류 등이 옛 모습 그대로 지켜지고 있고, 여자들의 직장 진출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남성우위는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이온죽, 1990). 유교 가부장제 전통의 봉건사회의 가족제도를 배격하는 ‘새 형의 인간’에 알맞은 전체주의적 가족개념을 혁명 전선에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또 하나의 가부장적 사회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을 직접 둘러본 한 일본인이 “사회주의 국가 이면서 유교사상을 또 하나의 국시로 하는데 성공했다”(이태영, 1990)고 평하고 있는 데서도 이런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부부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명목상으로는 ‘부부는 혁명동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관계이며 유교사회의 엄격한 성별분업을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 사적영역을 막론하고 여성 스스로도 이러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불만스러워 하거나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상대를 부르는 호칭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동무’라고 부르고 아내는

남편을 ‘동무’ 또는 ‘동지’라고 한다. 유교적 가부장제가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주의적 가족개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수직적 부부관계에 대한 이론(異論)이 제기될 여지가 없었다(박혜란, 1996). 1990년 이후 귀순한 21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한 전우택과 민성길(1996)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유교적 태도를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태도도 유교적이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공식영역, 직업영역 등에서 사회활동을 한 경험이 폭넓게 자리잡은 것은 북한여성들의 성격에 당당한 태도를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방문했던 한 남한 대표는 그가 만난 북한 여성들은 남한여성들에 비해 하나같이 당당하고 여유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서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호텔과 식당의 여자 서비스 요원들, 그리고 평양산원의 의사들, 금강산 안내원들 모두 당당했으며, 고위층 여성들의 경우는 더욱 더 그러했다. 그들은 차림새와 말하는 분명히 여성적이면서도 당당하게 공적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는 아마도 공적영역에 여성들이 다수 참여해 왔다는 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공식적인 회의나 집단적 상황에 참여하는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인 것 같다(강희영, 1996).

북한의 강력한 가부장적 문화가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성격특성을 전형적으로 만들고,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보수적으로 만들었는지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남북한의 가치관에 대한 비교연구는 꾸준히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왔고, 직접 경험적인 조사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문헌연구나 탈북자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자료가 조금씩 축적되어가고 있다. 성역할 분야는 남북한의 사람들간에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많은 갈

등을 예고하는 분야이나, 북한사람의 성역할에 관한 경험적 심리학 연구는 아직 한 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탈북자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북한사람의 성역할 특성 및 가치관을 살펴봄으로써 이 분야의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그 결과를 남한의 기준과 비교하여 그 차이의 크기와 내용을 규명하고,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방 법

### 조사대상자

최근에 남한에 입국하여 통일부의 남한사회적응교육기관에 입소하여 있는 남녀 탈북자 154명을 조사대상으로 2002년 5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2002년 3-4월에 남한에 입국하여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적응교육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중이었다. 이곳은 보안시설로서 여기에 입소하여 있는 탈북자들은 원칙적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으며, 2개월의 교육기간을 마치면 남한사회에 나가서 살게 된다. 따라서 아직은 남한사회와 본격적인 접촉을 하기 이전의 상태이다.

### 설문지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함께 성역할 성격특성과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하는 검사들로 구성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나이, 성별, 결혼상태, 학력, 북한에서의 직업 등과 더불어 탈북한 날짜, 남한에 입국한 날짜 등을 기록하게

하였다.

성역할 성격특성은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성역할검사(KSRJ)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SRJ는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을 나타내는 60개의 성격특성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고, 검사를 받은 사람은 이 각각의 문항들이 얼마나 자신을 잘 표현하는지를 생각하여 보고, 7점 척도에 답을 하게 되어 있다(“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7)점까지). 응답결과를 처리하면, 각 응답자의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평균을 이용하여, 개인의 성격특성을 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김양희·정경아(2000)가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한국적 상황에서 다양한 측면의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검사로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1990년대 들어 점점 정교해져 온 성차별의 개념을 반영하면서,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라는 생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점수가 높은 것이 남녀평등한 태도를 나타내도록 부호화하여 척도별로 각각 20문항의 점수를 합산하면 가능한 점수범위가 20-80점이 된다. 전체의 총점은 척도 점수 네 개를 합산하여 범위가 80-320점이 된다.

### 자료수집과정

탈북자들은 입국 직후 상당 기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고, 상담과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검사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하나의 조사에 응답하는 것을 별로 반가와 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1년여의 기간동안 이 적응교육기관에 자문위원으로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의견을 내고, 자원봉사로 청소년반의 특강과 상담 등을 여러 번 담당하였고, 청소년의 조기적응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

하는 등 신뢰를 쌓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에 동의를 얻었고, 설문지 조사는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이 조사자료가 학술연구에만 사용된다는 점, 앞으로 남북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했다.

설문지에 응답하다가 탈북자들은 남북의 언어가 달라서 문항의 뜻을 잘 모르겠으면 연구자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비슷한 말을 알려주거나 예를 들어서 말의 뜻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북한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실시할 때, 비교문화연구에서 두 문화권 이상에 같은 검사를 실시해 비교해야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검사를 새로 작성,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결 과

### 연구대상자의 특성

응답한 탈북자 중에서 출생지가 중국이거나 남한에 입국한 연도가 2001년 이전인 경우를 제외하고 15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 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나이는 14세에서 62세까지 분포되어 있었고 평균은 31.3세였으며 20세에서 40세의 젊은 성인들이 전체의 69%를 이루고 있었다. 여자가 81명, 남자가 68명(무응답 1명)으로 여성이 약간 더 많았고(54%), 기혼이 75명, 미혼이 69명(무응답 6명)으로 기혼이 약간 더 많았다.

출생지는 함경북도가 62%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은 함경남도(9.3%), 양강도(6.0%), 평안남도(4.7%), 강원도(4.0%)의 순이었다.

함경북도는 식량난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고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인접해 있어서 탈북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서, 위의 통계는 이러한 경향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많은 탈북자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탈북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외부문화와 처음 접촉한 시기를 알기 위하여 최초 탈북연도를 측정하였다. 최초 탈북연도는 1998년이 가장 많았고(33.3%), 다음은 1997년(23.3%), 1999년(16.0%) 등이었다. 이 결과로 보면 대부분이 3-5년 정도의 유랑생활 후 남한에 도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초 탈북연도가 1977년인 사람이 한 명, 1991년인 사람이 한 명 등으로 오랜 유랑생활의 끝에 도착한 사람들도 소수 있었다. 입국시기는 2002년 1-4월 사이로, 3, 4월에 도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97%).

학력은 인민학교 졸업이하가 14.7%, 고등중학교 졸업이 73.3%, 대학교 졸업이 12.0% 이었다. 북한은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의 학제를 가지고 있어, 수학 연수로 보면 고등중학교 졸업은 남한의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학력수준에 해당된다.

직업은 노동자와 기술자, 농장원이 다수였으며, 노동자 중에는 함경북도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무산광산, 온성탄광 등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많았다. 한편 보위대원, 선전대원, 배우 등도 있었고, 교원, 대학교원, 의사 등도 있어서 매우 다양한 직업분포를 보였다.

### 성역할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성역할 특성 점수를 남한 사람들에게서 얻은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한국 성역할검사(KSRI)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수정점수(김남숙, 정진경, 박광배, 1997)를 내어 남성성,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와 평균을 산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남성성 점수의 중앙치는 5.40(평균은 5.25),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도 5.40(평균은 5.34)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 사람들의 중앙치인 4.47과 4.29에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점수이다. 이 검사의 남성성, 여성성 문항들이 긍정적인 성격특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자기응답 형식의 설문지임을 고려하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1에 제시된 성차 검증 결과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남성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고,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여성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의 응답자들이 남녀간에 남성성, 여성성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남성성,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성역할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표 2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남성은 남성적 성격유형에, 여성은 여성적 성격유형에 가장 많이 분류되

표 1. 남성성, 여성성 점수의 성차 검증

	남성	여성	t	df	p
남성성	5.50	5.03	3.75	136	**
여성성	5.20	5.47	-2.01	130	*

\*  $p < .05$       \*\*  $p < .01$

표 2. 남녀 응답자의 성역할 유형

	남성	여성	전체
양성적	15	18	33
남성적	20	9	29
여성적	7	21	28
미분화	14	19	33
전체	56	67	123

$\chi^2=11.31, df=3, p < .01$

어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chi^2=11.31, df=3, p < .01$ ). 이 역시 남녀간에 성역할 유형구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남한의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남녀간에 평균의 차이가 큰 문항들을 차이가 큰 순서대로 일곱 문항 정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씩씩하다’와 ‘꼼꼼하다’의 두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문항들은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이 문항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였다.

남성성 문항 (남성평균 > 여성평균)

- 남성적이다. (5.68, 3.23)
- 모험적이다. (5.16, 4.06)
- 야심적이다. (4.37, 3.58)
- 근엄하다. (5.13, 4.38)
- 독립적이다. (6.03, 5.39)
- 씩씩하다. (5.60, 4.96)
- 강하다. (6.06, 5.47)

여성성 문항 (남성평균 < 여성평균)

- 여성적이다. (2.84, 5.81)
- 순종적이다. (3.76, 4.56)
- 암전하다. (4.06, 4.68)
- 알뜰하다. (5.70, 6.29)
- 깔끔하다. (5.53, 6.02)
- 씩씩하다. (4.57, 5.04)
- 꼼꼼하다. (5.61, 5.88)

남성성, 여성성 점수를 하위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여성성 점수가 나이가 들수록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대학졸업 집단이 고등학교졸업이하 집단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성평등의식

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 정경아, 2000)의 총점을 남녀별로 내어본 결과, 남성은 202.59, 여성은 212.92가 나왔다. 남한의 남성평균 208.53, 여성평균 237.15와 비교하면 북한 사람들이 남녀 모두 더 보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남녀를 비교하면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성차별적임을 보여준다. 남녀평등의식검사는 검사제작과정에서 점수해석을 위한 기준을 남녀 각각에 대하여 제시하였는데, 가장 평등의식이 높은 사람이 백분위 점수 100, 가장 낮은 사람이 0을 받게 되어 있다. 북한사람들의 점수를 남한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백분위 점수가 남성은 43, 여성은 22 수준에 해당한다. 즉 남녀가 모두 남한의 평균(50)에 비하여 보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남성들간의 차이보다 여성들간의 차이가 더 커서, 남북한의 여성들이 남녀역할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견해차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남북한 사람들의 점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보면 북한여성들이 남한여성들보다 보수적이라 해도, 남한남성들보다는 성평등의식이 높다는 것이 드러난다. 남녀간의 성평등의식의 차이가 북한에서는 별로 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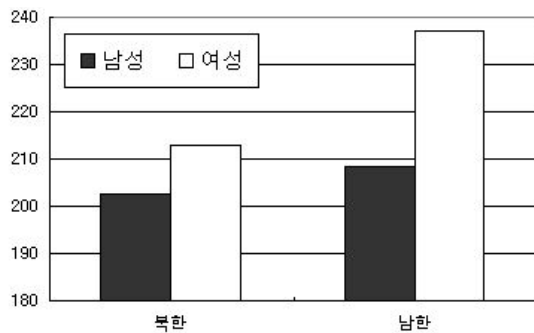


그림 1. 남녀평등의식검사 점수의 남북한 비교

표 3.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생활영역 점수의 성차 검증  
( ) 안은 남한 기준에서의 백분위 점수

	남성평균	여성평균	t	df	p
가정생활	52.88 (48)	55.44 (23)	-2.02	125	*
교육생활	51.72 (60)	53.59 (41)	-1.18	131	
직업생활	51.38 (57)	54.65 (28)	-2.53	127	*
사회문화생활	46.61 (36)	49.24 (13)	-2.91	132	**

\* p<.05 \*\* p<.01

않은 반면, 남한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네 가지 생활영역 차원의 점수를 계산하여 남녀의 점수를 차이 검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가정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 영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성평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생활의 영역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한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북한남성은 대체로 남한남성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교육생활과 직업생활 영역에서는 남한보다 약간 성평등적인 성향을 보였고, 사회문화생활에서만 백분위 점수가 36%로 남한남성보다 성차별적이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북한여성은 전반적으로 남한여성에 비하여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문화생활은 백분위 점수가 13%로 남한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가정생활도 23%로 남한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문항들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문항들은 4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의 평균이 산출된 문항들이다(4점-매우 동의함, 3점-대체로 동의함). 문항 뒤의 (-)표시는 문항내용이 성평등에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점수화할 때 역부호화한 문항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정생활영역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한다.

결혼한 남자는 처가 쪽의 대소사를 자기 집과 똑같이 챙겨야 한다.

폐백은 양가 부모님께 모두 드려야 한다.

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아들, 딸 구별 없이 집안 일을 시키겠다.

재산을 아들, 딸 구별 없이 똑 같이 물려주겠다.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외도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이다. (-)

교육생활영역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타고난 지적능력의 차이는 없다.

교사는 여학생들이 과학이나 공학분야로 진학하도록 적극적인 진로지도를 해야한다.

교사양성과정에 남녀평등의식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해야한다.

학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얹힌 행동이나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

암기과목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잘 한다. (-)

직업생활영역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직원은 같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자가 매우 적은 직업에 일정한 비율의 여자

를 뽑도록 하는 할당제에 찬성한다.

점수나 안내업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적합하다. (-)

여자는 자녀와 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업활동을 해야한다. (-)

사회문화생활영역

성을 파는 사람은 물론 사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

텔레비전에서는 평등한 남녀관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

여자들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선택해주기를 바라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 선택해야 한다.

컴퓨터 통신에 성희롱이나 성차별적인 내용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한다. (-)

여자는 남자를 위해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 (-)

여자가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

남자들의 우정은 여자들의 우정보다 깊고 오래 간다. (-)

광고에서 여성의 몸을 선정적으로 그리는 것은 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지 여성차별은 아니다. (-)

위의 높은 평균을 보인 문항들의 내용에 대한 분석은 논의 부분에 제시하였다.

생활영역별 점수를 나이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네 가지 영역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력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는 대학졸업 집단이 고등학교졸업이하 집단보다 사회문화생활



표 4. 결혼상태에 따른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생활영역 점수의 차이 검증

	미혼	기혼	t	df	p
가정생활	55.54	52.86	2.51	120	*
교육생활	54.97	50.86	2.57	126	*
직업생활	54.44	51.77	1.97	123	*
사회문화생활	48.54	47.35	1.28	127	

\*  $p < .05$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평등의식이 더 높았다( $t = -2.77$ ,  $df = 133$ ,  $p < .01$ ).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가정생활, 교육생활, 직업생활의 영역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성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생활 영역의 점수는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전반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영역별 점수들을 성별과 결혼상태로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두 변수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역할 유형에 따라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영역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도 검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북한사람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남한의 자료와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14세에서 62세까지의 남녀 탈북자 150명을 조사하여 북한사람의 자료로 사용하였는데, 탈북자라는 특수한 집단의 자료를 북한사람이라는 범주로 일반화하는데는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탈북자들은 그들 고유의 어려움과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주로 함경북도 출신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서, 북한사람의 대표적 표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료의 한계를 인정한 후에야, 결과를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대표적 표본을 조사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은 경험적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귀중한 연구대상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거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사람들은 남한사람들에 비해 성역할 측면에서 더 성전형화된 즉,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에 더 잘 맞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사람들이 남녀간에 남성성, 여성성의 평균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여, 북한사람들은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 여성은 여성성이 높고 남성은 남성성이 높았다. 그 결과 성역할 유형구분에서도 남성은 남성적 성격유형에, 여성은 여성적 성격유형에 많이 분류되어, 남녀간에 성역할 유형구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남한의 결과와는 대조되었다. 탈북 여성들이 남한에 와서 “남자들이 온순하고, 부드럽고, 여자한테 잘한다”고 말하는 한편, 탈북 남성들은 “남한 여자들은 남자 친구를 툭툭 치기도 하고 거침없이 행동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차이가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남녀간에 평균의 차이가 큰 문항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남성적이다’와 ‘여성적이다’라는 문항이 남녀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 문항들에서는 남녀 응답자가 모두 자기의 성별에 맞추어 매우 전형적인 응답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항들은 주로 씩씩하고 강력한 남성성을 나타내고 있다. KSRI에는 이 문항들 이외에도 ‘믿음직스럽다, 과묵하다, 자신감이 있다, 대범하다, 의리가 있다’ 등의 남성성 문항들이 있는데, 이 문항들에서는 남녀차이가 상대적으로 별로 없

었다. 여성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항들은 주로 순종적이고 암전한 것과 함께 알뜰, 깔끔, 꼼꼼한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KSRI의 ‘섬세하다, 다정다감하다, 감정이 풍부하다, 온화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등의 여성성 문항들에서는 남녀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즉 남성성에 대해서는 썩썩하고 야심적인 강력함과 능동성의 측면을 주로 강조하고 믿음직스럽고 마음이 넓어야한다는 것은 남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며, 여성성에 대해서는 순종적이고 암전한 수동적인 여성성과 생활에서의 알뜰함을 강조하고 섬세하고 다감하고 부드러운 특성은 남한에 비하여 덜 중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 사회가 지난 수십년간의 산업화의 과정에서 개인주의적이고 개방적인 서구문화와 접촉을 계속해오면서 사람들의 가치관과 성격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 데 비하여, 북한은 지금까지 사회주의권의 몇 나라와의 경제적 관계를 제외하고는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문화적 속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면, 성역할 특성의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의 남녀평등이념에 걸맞는 진보적 인간형으로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남녀평등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북한사람들이 남한사람들에 비하여 남녀 모두 더 보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북한을 비교하면, 남성들간의 차이보다 여성들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1을 참고하면 여성들간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남한여성들의 성평등의식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남녀간에 의식의 격차가 10

점 정도인데 비하여, 남한은 그 격차가 28점이나 된다. 또한 북한여성들이 남한여성들보다 보수적이라 해도, 남한남성들보다는 성평등의식이 높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 결과를 보면, 현재 일상생활에서의 남녀간의 성역할 갈등의 문제는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더 심각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사람들이 만날 때, 남한여성과 북한남성이 만나는 경우가 북한여성과 남한남성이 만나는 경우보다는 더 성역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생활영역별로 보면 북한남성은 대체로 남한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교육생활과 직업생활 영역에서는 남한보다 약간 성평등적인 성향을 보였고, 사회문화생활에서만 좀 더 성차별적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여성은 전반적으로 남한여성에 비하여 상당히 보수적이었고, 특히 사회문화생활과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위의 총점에 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한여성의 성평등의식이 크게 제고되었기 때문이며 그 변화가 사회문화생활과 가정생활 영역에서 특히 컸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북한사람들이 동의한 정도가 높은 문항들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각 영역마다 성평등적인 내용과 성차별적인 내용이 혼재하고 있었다.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집안 일에 대한 결정권, 재산에 대한 소유권, 아들과 딸에 대한 재산상속 등의 문제에서는 성평등적인 가치관을 표명하면서도,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든지,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외도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모순적인 양상을 보였다. 교육생활 영역에서는 남녀간에 지적 능력의 차이가 없고 여학생들이 과학이나 공학분야로 진학하도록 지도해야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여학생들에게 더 암전한 행동이나 옷차림을 강조해야한다고 하였다. 직업생활 영역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남녀직원에게 같은 월급을 주어야 하고, 여자가 적은 직업에 할당제를 두는 것 등에 찬성하는 한편, 접수나 안내업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적합하고, 여자는 자녀와 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업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사회문화생활 영역에서는 텔레비전에서는 평등한 남녀관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하고, 컴퓨터 통신에 성희롱이나 성차별적인 내용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여자들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는 문항들에 매우 찬성하면서도,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하고, 남자들의 우정은 여자들의 우정보다 깊고 오래 가며, 여자는 남자를 위해 자신을 가꾸어야 하고, 여자가 육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위의 응답내용들은 모순되는 생각들을 담고 있는데, 흥미로운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제도가 공적 조치에 대한 태도의 표명에서는 성평등적인 가치관을 표명하는 한편, 남녀의 바람직한 성격과 행동, 몸가짐에 대한 태도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매우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보인다는 점이다. 소유권, 재산상속, 진로지도, 월급, 할당제, 텔레비전에서의 남녀평등, 여성의 권리보호모임 등의 제도적, 공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평등 지향적인데, 여학생들의 행동이나 옷차림, 여성의 육설이나 음담패설, 여성의 꾸미기, 남성의 약한 모습이나 우정 등 남녀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서는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였고, 아들 두기, 외도, 여성의 직업활동이 가사에 지장을 주는 것 등의 사생활 영역에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적인 문제에 대한 성평등적인 태도의 표명은 아마도 북한의 교육과 생활총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념적으로 바람직한 공식적인 태도를 숙지하

고 표명하는 것에 익숙해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에 격차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격차가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에서 정확히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여성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고 하며 전통 가족을 “붉은 가정”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했지만, 위의 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가족 관계를 비롯한 일상의 문화가 가부장적 가족주의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이념은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게 만들었지만 가정에서는 여전히 남성우위의 원칙이 굳건하며, 이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도 집안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히려 더 “혁명적”인 변화는 문화의 급격한 개방과 변화 속에서 남녀평등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남한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세 집단에 비하여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총점이나 영역별 점수 모두에서 현격하게 진보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들 중 여성이 남성보다 가정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 영역에서 성평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대학졸업 집단이 고등중학교졸업 이하 집단보다 사회문화생활 영역에서 더 성평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문화생활 영역에서 북한이 남한에 비하여 매우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중에도 교육수준의 증가는 성평등의식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평양과 여타의 지방 사이에 교육수준을 비롯하여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 점은 평양사람을 다수 포함한 북한의 대표적 표본을 연구할 수 있을 때 새로이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나이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것에 비하여,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가정생활, 교육생활, 직업생활의 영역에서 더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결과도 흥미롭다. 남한에서도 결혼과 더불어 사회제도 속으로 더 깊이 편입되면서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는 탈북자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제한된 자료로나마 최초로 북한사람의 성역할 특성과 태도를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분야의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는데 일차적인 의의를 두고 있다. 분단시기 동안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사회변화에 따라 형성된 남북의 성역할 차이의 현황을 밝혀내었고, 앞으로의 연구축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북한사회의 대표적 표본을 구할 수 있다면 자료의 정확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을 다양한 관련변인들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관계의 구조를 남한과 비교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교류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이 연구의 자료는 서로간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는 문화이해지(정진경, 2000; 정진경, 최진이, 김성민, 정진현, 2002) 등의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사람들을 위한 통일교육, 경제협력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교육, 탈북자들을 돕는 ‘인터페이스 인물’들(Hofstede, 1991; 예를 들어 형사, 사회사업가, 의사, 교사, 상담자 등)을 위한 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가진 남북한의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생활하게 될 때 생기는 갈등, 변화와 적응의 양식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해서 살려면 남한 사회의 성역할 기대와 부딪히며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추측하자면, 북한남성들은 위남 남

성적 성격특성이 강한데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므로, 남한의 성역할에 적응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 것이다. 반면에, 북한여성들은 자기의 권리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변화와 적응이 빠를 것이다. 특히 가족과 함께 오지 않고 혼자 온 여성들의 경우에 변화를 가로막는 사람이 없으므로 변화가 더 용이할 것이다. 이민이나 난민의 문화적응 과정에 나타나는 성차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성들이 스트레스와 심리적 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결과도 있고(Beiser, Barwick, Berry, Da Costa, Fantino, Ganesan, Lee, Milne, Naidoo, Prince, Tousignant & Vela, 1988; Furnham & Shiekh, 1993), 남성들이 더 적응이 어렵다는 결과도 있어서(Boski, 1990, 1994), 개인의 성격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그 체재국의 문화가 Hofstede(1991)의 분류에서 남성적이고 권력거리가 큰 문화인 경우에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Caligiuri & Tung, 1999). 남한은 북한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성적이고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일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역할 변화와 적응이 남녀에게 어떠한 양상으로 일어날 것인지는 연구해 볼만한 주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성역할의 변화와 적응은 본인의 내재된 성격이나 가치관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의 수많은 국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문헌들은 이주자의 성역할 변화가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Costello, 1980; Davison, 1981; Simon, 1986; Walter, 1981). 앞으로의 연구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성역할 변화가 전반적인 사회적응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타문화로 이주한 사람들의 성역할 변화와 문화적

응의 관계를 좀 더 폭넓게 이론적으로 조망하고, 관련변인들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밝혀내는데도 공헌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을 조사하면서 남한문화를 기반으로 작성한 검사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들이 설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북한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실시할 때, 비교문화연구에서 두 문화권 이상에 같은 검사를 실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검사를 새로 작성,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강희영 (1996). 평양에서 나는 속내 이야기.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김남숙, 정진경, 박광배 (1997). 한국성역할검사의 수정점수 및 분류기준 산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77-90.
- 김양희, 정경아 (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사용설명서. 한국여성개발원.
-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논문집. 서울.
- 도홍렬 (1994). 남북한 체제 변화 과정과 주요 사회적 관행의 변용 양상: 사회문화 분야.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혜란 (1996). 생활문화와 삶의 질.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에 대한 비교: 제 4차 통일문제 학술 세미나.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 성영신, 서정희, 심진섭. (1993). 남북한의 경제심리 비교: 귀순자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 안찬일 (1997). 남북한 사회 이질화현상 극복에 관한 소고. 북한 이탈주민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정책 세미나 발표논문. 남북사회문화연구소.
- 이수정 (1999). 북한인에 대한 남녀의 편견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68-79.
- 이온주 (1990).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참여. 북한연구, 1, 88-104.
- 이장호 (1993). 남북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요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 이태영 (1990). 북한의 여성 해방정책과 가부장제. 북한연구, 1, 105-119.
- 전우영 (1999). 남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탐색: 성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19-232.
- 전우영, 조은경 (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55-166.
- 전우택 (1997).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 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36(1), 3-18.
- 전우택 (1999).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 적응 개선 방안.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99-05.
- 전우택, 민성길 (1996).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들의 삶-문제와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KSRI). 한국심리

- 학회지: 사회, 5(1), 82-92.
- 정진경 (2000). 남북한간 문화이해지. 조한혜정, 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 서울: 삼인.
- 정진경, 최진이, 김성민, 정진현 (2002). 북한에서 온 내 친구: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남북한간 문화이해지. 서울: (주)우리교육.
- 한성열 (2000). 북한의 문화적 특성과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논문집. 서울.
- 차재호 (1993).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조망.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 Beiser, M., Barwick, C., Berry, J. W., Da Costa, G., Fantino, A., Ganesan, S., Lee, C., Milne, W., Naidoo, J., Prince, R., Tousignant, M. & Vela, E. (1988). *Mental health issues affecting immigrants and refugees*. Ottawa: Health and Welfare Canada.
- Boski, P. (1990). Correlative national self-identity of Polish immigrant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n N. Bleichrodt and P. J. D. Drenth (Eds.), *Contemporary issu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pp. 207-216). Lisse, The Netherlands: Swets & Zeitlinger.
- Boski, P. (1994). Psychological acculturation via identity dynamics: Consequences for subjective well-being. In A. M. Bouvy, F. J. R. van de Vijver, P. Boski and P. Schmitz (Eds.), *Journeys into cross-cultural psychology* (pp. 197-215). Lisse, The Netherlands: Swets & Zeitlinger.
- Caligiuri, P. M. & Tung, R. (1999). Comparing the success of male and female expatriates from a US-based multinational compan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0, 763-782.
- Costello, B. (1980). Women Refugees. *Migration Today*, 8, 34-35.
- Davison, L. (1981). Women Refugees: Special needs and programs. *Journal of Refugee Resettlement*, 1, 16-26.
- Furnham, A. & Shiekh, S. (1993). Gender, generational and social support correlates of mental health in Asian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39, 22-33.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NY: McGraw-Hill.
- Simon, R. J. (1986). "Refugee women and their daughters: A comparison of soviet, Vietnamese and native-born American families" in Williams, C. L. and Wetermeyer, J. (eds.). *Refugee Mental Health in Resettlement Countries* (pp. 141-156). Washington, D. D.,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Walter, I. (1981). One year after arrival: The adjustment of Indochinese women in the United States (1979-1980). *International Migration*, 19, 129-152.

# Gender-Rol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North Koreans: Data from the North Korean Refugees

Jean-Kyung Chu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re the only available subjects today for an empirical study of gender role characteristics and gender egalitarianism of the North Koreans. One-hundred and fifty North Korean defectors, both female and male, and ages ranging from 14 to 62, answered a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Korean Sex Role Inventory and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The results revealed that North Koreans are more gender-typed in their gender role characteristics compared to South Koreans. Wome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femininity scores than men, and me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masculinity scores than women, whereas South Korean data do not show much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With regard to gender egalitarianism, North Koreans showed more conservative attitudes compared to South Koreans, and men were more discriminating than women. The dif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however, were greater for women than men, and it was attributed to the rapid value changes toward gender egalitarianism among South Korean women. A close look at the items that North Koreans strongly agreed to showed a tendency to express progressive attitudes mostly on formal and institutional issues, and to show conservative attitudes on personal and private issues. In addition, the effects of age, education, and marital status on the gender role characteristics and gender egalitarianism of the North Korea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North Korea, gender role, gender role characteristics, gender egalitarianism